찾아가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 시동

전주시, 한옥마을 등 다중집합장소 연중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전시장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을 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등 다중집합장소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 전시장인 ‘꽃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형 갤러리 사업은 지역 예술계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아트마켓 진입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와 작품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예술작품들을 생활공간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술관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다.

이동형 갤러리에는 1차 공모에 선정된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전북대 대학로 광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는 전주 풍남문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참여 작가를 20명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한옥마을과 고속버스터미널, 팔복예술공장 등 다중집합장소 및 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문화소외지역 등 의미가 있는 장소를 연중 무휴로 찾아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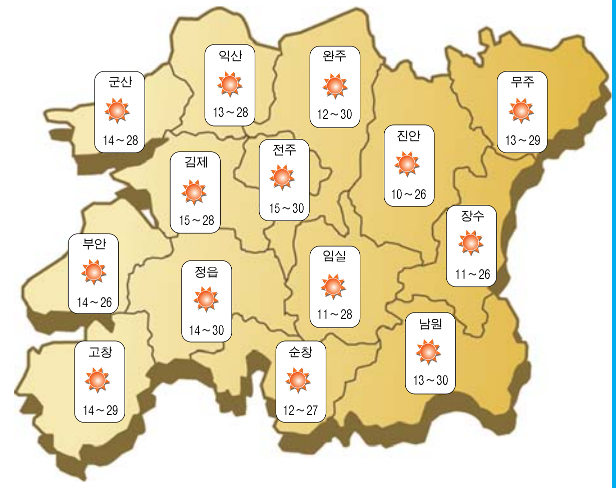
시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전주를 상징하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문화특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작가들에게는 창의적·실험적 발표기회를 제공해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전주의 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5월 22일 월요일 해뜸 05:20 | 해짐 19:35 달뜸 22:47 | 달짐 10:39

날씨 최저기온 10~17도 최고기온 25~30도



어울림이 있는 ‘도·농교류체험학습’

군산문화초-부안격포초, 생활지역 서로 다른 양교 학생들 서로 교류장 마련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지난 18일~19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안격포초등학교 학생(교장 윤완기)을 초청하여 도농교류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날 도농교류체험학습은 군산문화초등학교(교장 오영환)에서 이루어졌는데 생활지역이 서로 다른 양교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상대 지역의 문화체험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문화적 특성 및 자연환경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군산지역을 방문한 격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오전에는 군산문화초에서 문화초 학생들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군산지역의 동국사, 일본식 가옥, 근대역사박물관을 함께 걷고 알아가면서 우정을 키우는 활동을 하였다.

9월에는 문화초 학생들이 격포초등학교에서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부안신재생에너지체험관에서의 미래의 에너지 체험과 부안궁항 요트장에서의 요트체험활동을 할 예정이다.

주 교육장은 “교육이란 배움과 삶이 하나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함께 만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 물류학과-동영해운 상호발전 위한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및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 동영해운은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세미나실에서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 및 관련 분야 성장을 가속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대학교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해운·항만물류, 공급망관리, 경영전략, 마케팅, 정보화,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등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검증된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동영해운과 군산대학교는 임직원 특강, 멘토링, 현장실습 및 인턴십, 현장견학 등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동영해운은 1974년 설립되어 4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중견 해운 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1260억원에 달한다. 특히 군산항에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해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군산대학교 물류학과는 해운항만·SCM·물류시스템·국제물류·유통·중국물류·물류관리 등 전임교수 5인을 보유하고 있고, 학부 및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위(Wee)클래스 업무담당자 연수

26일, 전주·군산·완주 외 지역 1백25교 업무담당자 대상

위(Wee)클래스 업무 담당자 연수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 연수는 학교의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고 학교 부적응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9일 1차 연수는 전주, 군산, 완주 지역의 113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연수에서는 최훈정 군산중 전문상담교사의 위(Wee)클래스 운영 사례 발표와 임신일 예수대 교수의 ‘담기는 학생과 담아주는 교사’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공감형 상담실 위(Wee)클래스는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눈높이 이해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6일 2차 연수는 전주, 군산, 완주 외 지역 1백25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키고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를 개최한다”면서 “연수를 통해 직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사례공유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군산교육지원청

원도심학교 대상 찾아가는 문화체험공연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지난 18일 오전 옥구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문화체험공연을 실시했다.

어울림학교와 원도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체험공연이 10개 학교(14개 학교 대상, 소규모학교 연합)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데 옥구초등학교에서 첫 공연이 이루어진 것.

판토마임 공연을 중심으로 풍선쇼와 버블쇼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공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판토마임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였다.

주광순 교육장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어울림이 있는 행복한 군산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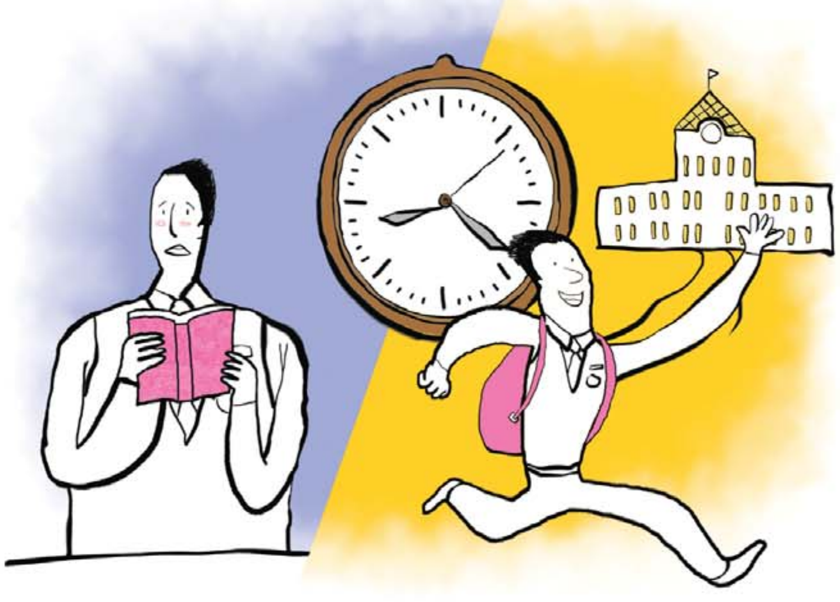
구독·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